

## News

### 점점 쪼그라드는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중앙일보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대출 관련 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다. 일종의 할인 혜택인 대출 우대금리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우리전세론'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0.2%로 조정한다. 기존 대출 우대금리(0.4%)보다 0.2%포인트 낮춘다.

### 官·法 출신 40%, '방패막이' 역할...지주-계열사 회전문

파이낸셜뉴스

국내 금융지주들은 지난 4년 간 사외이사로 관료 및 법조계 출신 인사를 약 40%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5대 금융지주 지방금융지주의 사외이사는 총 103명으로 집계. 이 가운데 관료, 법 출신 인사는 약 42명.

### 인수 추진하다 소송·과태료...4대 은행 피소액만 1.7조 넘어

뉴스1

4대 주요 시중은행이 국내외에서 다수의 법적 분쟁에 휩싸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소액만 1조7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은 사업보고서에서 주요 법적분쟁 현황을 공시. 해외 은행 인수를 추진하다 이전 최대 주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고 공개

### SK바사 청약때 빠져나간 신용대출 '5조원'...다시 은행 돌아왔다

뉴스1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힌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주 청약 당시 5대 은행에서 빠져나갔던 약 5조원의 신용대출 자금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을 전후로 신용대출 잔액이 요동 친 것은 '빚투' 청약의 영향이 크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으며 증시 흐름에 따라 신용대출 잔액도 변동을 보일 가능성 높다.

###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 사임

e대한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재단 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서다. 이 부회장의 이사장직 퇴임 절차를 밟고, 서 전 성균관대 총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서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23일부터 3년

### 미니보험사 설립 문의 쏟아진다...6월 보험업계 새바람 불까

뉴스1

반려견 보험, 날씨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 보험'(소액 단기 보험) 시장이 오는 6월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다양한 업권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은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 간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다. 보험기간은 1년 이내로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은 5000만원이다

### 금융당국·靑 출신 모셔라...증권가는 '금소법 방패 찾기' 안간힘

서울경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준비되지 못한 탓에 증권사들은 결국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급히 금융 당국이나 청와대 출신 등 일종의 '방패막이용' 인사 영입에 나서고 있다. 금융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결국 관피아 또는 정치인들만 옷게 댔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절호의 매도시점에" 못믿을 증권사 MTS...동학개미 부글부글

뉴스1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토스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 지난 19일 일으킨 '접속지연' 등 전산장애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초 코스피 급등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됐음에도 모바일레이딩시스템과 홈트레이딩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